



보 도 자 료

2015년 8월 23일(일) 배포시점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문의 :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엄열 과장(☎2110-1520)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은자 주무관(☎2110-1567)

제공일: 2015. 8. 23.(일)

휴대전화 판매점, '개인정보 지킴이 매장' 으로 고객정보보호에 앞장서

- '2015 이통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실시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협회, 이동통신 3사 (SKT, KT,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정보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8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한 달 동안 '2015 이통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

2010년부터 진행되어온 본 캠페인은, 올해 '개인정보 꼼꼼히 지키는 일, 고객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슬로건 하에 서울·경기 및 주요도시 휴대전화 판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고객 개인정보 자율 지킴이 서약'을 똑 소리 나게 지켜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지킴이 매장'을 집중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현장 방문 컨설팅과 개인정보 문서 현장 파쇄 등 다양한 매장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지켜야 할 개인 정보보호 수칙을 담은 교육동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들이 본 캠페인의 긍정적인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릴레이 퀴즈 풀기 등 다채로운 온라인 경품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캠페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2015 이통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홈페이지(www.safetykeep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은 "개인정보 오·남용 걱정 없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고객 최접점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판매점 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개인정보를 꼼꼼히 지키는 일이 곧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첫 걸음임을 인식하고, 많은 판매점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똑똑하게 '개인정보 지킴이'역할을 해주길 응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인정보 지킴이 매장'은 매장 발굴단을 통한 현장 가입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3.0 실현 기반인 고객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선 우수 지킴이 매장을 선정, 오는 12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붙임 1.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포스터

붙임 2. 개인정보 지킴이 매장 스티커

붙임 3. 고객 개인정보 자율 지킴이 서약. 끝.

[붙임1] 2015 이통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포스터



[붙임2] 개인정보 지킴이 매장 스티커



'고객 개인정보 자율 지킴이 서약'을 똑 소리 나게 지켜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앞장서는 휴대전화 판매점입니다.

개인정보 지큄이 매장

www.safetykeeper.or.kr

2015 이통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www.safetykeeper.or.kr

고객 개인정보 자율 지킴이 서약

-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 고객의 개인정보는 이동전화 가입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누설 및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은 고객에게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 텔레마케팅을 위해 임의로 고객정보를 수집 ·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지정하고 자제적인 보안점검 수행 및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